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교재의 호칭어 사용 실태 -본문 대화문을 중심으로-

김홍매* · 김광수**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교재의 중요한 교수 자료인 본문 대화문의 호칭어 사용 실태를 사회언어학적 관점으로 연구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한국어 교재의 대화문에 제시된 호칭어의 선정과 대화문의 내용 구성에 사회언어학적 요인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선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선행 연구에 대한 고찰과 분석을 통해 사회언어학적 요인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분석 대상 교재를 선정하고 대화문에 제시된 호칭어를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 요인과 상황 요인을 대분류로 하고 세부적인 하위 요소들을 호칭어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교재의 본문 대화문이라는 텍스트에 한정되었다는 제한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사회언어학적인 요인을 적용한 한국어 교재 대화문 내용 구성에 참고적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주요어 한국어 교재, 호칭어, 사회언어학, 대화문

* 제1저자/교신저자, 연변대(중국), 조한문학원, 박사후 연구원, khm0425@ybu.edu.cn

** 공동저자, 연변대(중국), 조한문학원, 교수, yuyansuo@ybu.edu.cn

1. 서론

한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이 대두되면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언어 표현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의사소통은 상호작용 과정이며, 모든 상호작용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대인관계 형성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언어 표현이 바로 호칭어이다.

한국어의 호칭어는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 그 유형이 다양하고 사용과 선택에 많은 요소가 작용을 한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들의 습득과 선택, 정확한 사용에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또한 호칭 문화, 한국의 사회문화적 관습 등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제대로 된 호칭어를 선택하여 사용하기가 힘들다. 이는 Балакай, А. Г(2002)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호칭어에는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직업, 연령, 교육, 거주지, 문화 수준, 상하 관계 및 친소 관계 등이 함축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재의 호칭어의 사용 실태에 대하여 사회언어학적 관점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 언어 표현 중에서 호칭어의 선택적 사용 양상은 사회언어학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언어적 능력에서 언어 사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회적 관계의 언어적 표지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다룬 유럽공통참조기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유럽평의회(2018: 118-120)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언어적 표지¹에 인사말의 선택과 사용, 호칭어의 선택과 사용, 말차례 갖기 규약, 감정적 표현의 사용과 선택 네 가지를 포함시켰다.

이와 같이 호칭어는 사회적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언어적 표지임과 동시에 또 대화를 시작하거나, 주의를 끌기 위해 상대방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호칭어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를 살펴보면, 호칭어는 '사람이나 사물을

1 사회적 관계의 언어적 표지(Linguistic markers of social relations)

- use and choice of greetings (인사말의 선택과 사용).
- use and choice of address forms (호칭어의 선택과 사용).
- conventions for turntaking (말차례 갖기 규약).
- use and choice of expletives (감정적 표현의 사용과 선택).

부르는 말'로 '아버지, 어머니, 여보' 따위가 있다. 본고에서의 호칭어는 대화를 시작하거나, 주의를 끌기 위해 상대방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호칭어는 각 나라의 언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언어 범주이다. 그러나 호칭어의 체계와 사전적 의미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습자들은 실제 발화에서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한국어 호칭어의 체계가 복잡한 원인도 있고 경어법과도 밀접하게 관계되며 다양한 사회적 요소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종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쓰이는 호칭어 교육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한국어 교재의 호칭어 사용 실태를 살피고자 한다.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한국어 교재의 호칭어 교육 내용 선정, 제시 방법 등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여 한국어 교육 자료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2. 선행 연구

1) 호칭어와 사회언어학적 관계를 논한 연구

대인 관계의 형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 표현이 바로 호칭어이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계층, 신분, 연령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수직적인 상하 관계 또는 수평적인 친소 관계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언어 표현의 예로 호칭어를 들 수 있다. 이에 우선 호칭어와 사회언어학적 관계를 논한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는 최규일(1986), 최석재(2007), 이정복(2011), 유원호·채서영(2011), 박은하(2013), 김혜진 외(2015), 한현희(2016), 김미경 외(2019), 조태린(2020) 등이 있다. 최규일(1986)에서는 한국의 친족 호칭에 대해 세대, 향렬, 연령, 결혼 유무, 공경의 표시, 가문과 관습, 지역과 사회 계층 등에 따라서 달리 실현된다고 하였다. 최석재(2007)에서는 호칭어를 선택하여 사용할 시 고려되어야 할 상황 변인을 관계(사적-공적)의 친밀도, 인식, 직위 등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정복(2011)은 트위터를 대상으로, 소통

구조 및 언어적 성격을 파악하고 호칭어의 쓰임을 사회언어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유원호·채서영(2011)는 직업명이 타이틀과 호칭어로 쓰이는 양식을 둘러싸고 일곱 개 언어에 대해 사회언어학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특히 수직적 인간관계가 강조되는 동양사회와 수평적인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서구사회의 대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은하(2013)에서는 호칭어 ‘선생님’을 사회언어학적으로 알아보았다. 연구에서는 호칭어 ‘선생님’의 변이형을 조사하여 매체를 통한 사례로 그 실제 쓰임을 분석하였다. 또한 ‘선생님’의 쓰임과 관련된 사회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결과 ‘선생님’의 사전에서의 지시적 의미가 편협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선생님의 표준형과 변이형이 사회적 요인에 따라 사용상에서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김혜진 외(2015)에서는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친족 호칭어의 다양한 쓰임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세종 말뭉치를 바탕으로 친족 호칭어의 다양한 쓰임에 관한 용례를 구축하여 사회언어학적 요인별로 유형화하였다. 김미경 외(2019)에서는 대학생 간 호칭어 사용에 대해서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 방법론에 입각하여 여러 변인에 따라 어떤 호칭어가 선택되는지 살펴보았다. 주로 ‘발화자 변인’, ‘수신자 변인’, ‘상황 변인’ 세 가지 변인군을 설정하여 60명의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에게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학년에 따른 변화는 ‘님’에서 ‘씨’인 것으로 나타났고, 발화자와 수신자의 성별 및 친소 관계에 따라 연상 수신자에 대한 호칭어 사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호칭어 선택에 있어서 학년의 영향이 나이의 영향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어 호칭어의 선택 사용에 영향을 주는 사회언어학적 요인을 정리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박영순(1995), 이정복(2012), 이수만(2003), 한현희(2016)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박영순(1995)에서는 한국어 화자가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청자가 친척이냐 비친척이냐이며, 친척일 경우는 우선 향렬을 고려하고 다음은 나이, 그 다음은 혈연관계 등이라고 밝힌 바 있다(박영순 1995: 560-561). 이정복(2012)에서는 경어법 사용에 관계되는 사회언어학적 요인으로 화청자의 긍정적·부정적·중립적 거리, 나이, 성별, 계층, 가족 지위, 사회적 지위, 공

식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대화에서 호칭어는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를 1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언어 표현이다. 이수만(2003)에서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를 크게 수직과 수평관계로 나타냈다. 어느 사회나 계층, 신분, 사회적 지위, 연령 등의 관계변수에 따른 수직적 상하관계가 있고, 심리적 거리감, 친밀 정도에 따른 수평적 거리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이수만 2003: 76). 호칭 이론에서는 호칭어의 선택적 사용 양상에 영향을 주는 사회언어학적 요인을 브라운과 길만(Brown and Gilman 1960)의 권력(힘, Power)과 유대(연대, Solidarity)의 개념²으로 설명하였다(한현희 2016: 106에서 재인용).

위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호칭어의 선택적 사용 양상은 다양한 사회언어학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호칭어의 교육 현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사회언어학적인 관점에서의 연구 또한 필요하다.

2) 호칭어와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

호칭어는 대화를 시작하거나, 주의를 끌기 위해 상대방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호칭어의 정의에 대해 박갑수(1989)에서는 ‘부름말’이라고 정의하였고 왕한석 외(2005)에서는 화자가 대화의 상대방과 말을 하는 동안에 그 상대방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 어구, 표현들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호칭어의 유형을 분류한 몇 가지 연구를 살펴보겠다. 박갑수(1989)에서는 감탄사형, 성명-접사형, 신분명형, 친족어 대리형, 성명-조사형, 대명사형, 명사형, 태호형, 외래어형 등 9가지로 나누었다. 황보나영(1993)에서는 호칭어를 이름/이름-접사형, 신분명형, 친족명형, 관계명형, 대명사형, 영형, 외래어

2 유사한 개념으로 Brown and Ford(1960)의 지위(status)와 친밀성(intimacy)을 들 수 있다. 또한 Beger의 지위(status)와 거리감(distance) 비슷한 개념으로 자주 등장한다. 왕한석(2005: 24)에서는 지위와 친밀성, 거리감은 권력과 유대의 개념과 상호 구분되기는 하지만 호칭 사용의 기본 원리라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모두 수직 또는 수평적 관계를 지시하므로 상호 교체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사한 개념들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여 위의 용어들을 상호 교체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형 등 8가지로 구분하였다.

박정운(1997)에서는 이름 호칭어, 직함 호칭어, 친족어 호칭어, 대명사 호칭어, 통칭적 호칭어, 기타 호칭어, 영형 호칭어 등 7가지로 나누었다. 이선화(2002)에서는 호칭을 직접 호칭과 간접 호칭으로 나누고 직접 호칭에는 친족어형, 명사형, 직함형을, 간접 호칭에는 처소지칭형, 주의끌기형, 생략형을 포함시켰다. 박상천(2004)에서는 한국어 호칭을 친족명사형, 일반명사형, 직위결합형, 이름결합형, 어린이 매개형, 처소형, 생략형 등으로 나누었다. 선행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어 호칭어의 유형은 다양하다. 또한 경어법, 언어 관습, 가치관 등과 밀접히 관계되어 호칭어를 정확하게 선택하여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호칭어 분류를 참조하여 정리한 김홍매(2019)의 한국어 호칭어의 분류를 참고하여 한국어 교재의 호칭어 사용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 1. 한국어 호칭어의 유형 분류

유형	표현 형태 예시
친족형	아버지, 어머니, 오빠, 누나, 형, 이모, 언니, 할머니, 할아버지 등
친족 대응형	언니, 오빠, ○○언니, ○○형, 아주머니, 아저씨 등
직함형	직함+님, 성+직함, 성+직함+님, 성+이름+직함, 성+이름+직함+님
이름형	성+이름+씨, 이름+씨, 성+이름, 이름(아/야), 성+이름+님, 성/성+이름+군/양, 성+형/씨, 지명+덕 등
일반형	학생, 손님(고객님), 선배, 아가, 처녀, 총각, 젊은이, 성+선생, 사모님, 선생님, 새댁, 성+여사(님) 등
대명사형	너, 너희, 여러분, 자기, 자네
감탄사형	야, 애, 여보 ³ , 여보세요
처소형	여기요, 저기요
어린이 매개형	○○엄마, ○○아빠

호칭어와 한국어 교육 및 교재 분석과 관련된 연구에는 강영(2006), 제효봉

3 부부사이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호칭어는 ‘여보’이다. 성별에 무관하게 상대편을 서로 호칭할 때 사용한다. ‘여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감탄사로 지정되어 있는 단어로 감탄사형에 넣는다. 그리고 전화할 때의 ‘여보세요.’도 감탄사형에 포함시킨다.

(2010), 최경희(2011), 강소산·전은주(2013), 유경옥·강미영(2017) 등이 있다. 강영(2006)에서는 한국인들의 집단주의, '관계지향적 대인관' 등이 호칭어의 사용에 미친 영향을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해설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제효봉(2010)에서는 먼저 여러 학자들의 호칭어 유형 분류를 근간으로 9가지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호칭어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호칭어 교육의 실재를 교재와 교수 방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과 호칭어에 대한 학문적 이론 토대가 부족하고 호칭어 교육을 위한 다매체 활용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또한 호칭어 교육을 위한 과제 활동이 매우 부족하다고 하였다.

최경희(2011)에서는 한·중 사회 호칭어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를 위하여 한국어 친족 호칭어 교육 내용을 선정, 제시하고 사회 호칭어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강소산·전은주(2013)에서는 대학 기관 한국어 교재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어 호칭어, 지칭어 교육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호칭어와 지칭어를 학습 목표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고 교재의 대화문에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 화자와 지칭되는 대상의 관계를 다양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직함형 호칭어, 지칭어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그 위계를 설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유경옥·강미영(2017)에서는 한국어 호칭어의 개념을 밝히고 선행 연구와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통해 한국어 호칭어 교육의 유형과 목록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문헌 연구를 통해 호칭어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후, 이에 근거하여 호칭어의 선택 흐름도를 구안하여 제시하였다.

위의 호칭어와 한국어 교육 관련 선행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어의 호칭어는 한국인들의 집단주의 성향, 위계를 중요시하는 관념 등 다양한 문화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호칭어의 선택적 사용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외국인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교수 자료인 교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3. 연구 대상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6종 총 58권의 한국어 교재를 분석 대상 교재로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한국어 교재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분석 대상으로서의 한국어 교재*

사용 환경 ⁵	교재	기관	출판년도	권수
KSL	서울대 한국어	서울대학교	2013-2015	총 12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국외국어대학교	2016	총 8권
KSL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국립국어원	2010-2012	총 6권
	표준한국어 ⁶	국립국어원	2020	총 12권
KFL	세종 한국어(증보판)	국립국어원	2019	총 8권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국립국제교육원	2015	총 12권
계				총 58권

위의 분석 대상의 대화문에 제시된 호칭어를 사회언어학적인 관점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호칭어의 선택적 사용에 영향을 주는 사회언어학적 요인을 크게 참여자(청자와 화자)요인과 상황 요인으로 나누고 그 하위 요소로 이정복(2012)을 참고하여 나이, 성별, 계층, 가족 지위, 사회적 지위, 관계(공적-사적) 등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교재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용 환경 또한 상황 요인에 포함시켰다.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
- 4 교재는 사용 환경에 따라 나누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완간이 된 한국 국내 대학기관 교재로 서울대 한국어 1-1~6-2 총 12권,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1-1~6 총 8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제2언어로서의 언어 환경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다문화 학습자 대상 교재인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6 총 6권,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총 12권, 외국어로서의 언어 사용 환경에 사용되는 교재로 세종한국어 증보판 1-8 총 8권,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1-1~6-2 총 12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 5 언어 사용 환경을 뜻함. KSL: 제2언어로서의 언어사용 상황(한국).
KFL: 외국어로서의 언어사용 상황(한국 외의 기타 지역).
 - 6 표준한국어는 교재 구성상의 특징에 따라 본문 대화문이 없었다. 그리하여 단원 구성 중 필수영역의 듣기 지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표 3. 사회언어학적 요인 및 하위 요소

사회언어학적 요인	하위 요소
참여자 요인	나이, 성별, 계층, 가족 지위, 사회적 지위
상황 요인	관계: 공적-사적 ⁷⁾ (공식성), 사용 환경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재의 본문 대화문에 제시된 호칭어를 <표 3>의 사회언어학적 요인에 따라 분석할 것이다. 우선 한국어 교재에서 본문 대화문의 호칭어 제시 양상을 정리한다. 그리고 참여자 요인과 상황 요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하위 요소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를 유형별로 분석하겠다.

4. 한국어 교재의 호칭어 사용 실태 분석

우선 6종의 한국어 교재 본문 대화문에 제시된 호칭어에 대하여 기초 계량적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표 1>의 호칭어 유형 분류에 근거하여 교재별 호칭어 제시 양상을 유형과 빈도에 따라 살필 것이다. 6종의 한국어 교재의 호칭어 제시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교재별 호칭어 제시 양상

유형	표현 형태	서울대 한국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표준 한국어	세종 한국어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친족형	아버지	4	×	×	×	×	×
	아빠	×	×	×	7	×	7
	어머니	1	×	1	×	×	×
	엄마	5	×	3	40	×	35
	어머님	×	×	9	×	×	×
	어멈아	×	×	3	×	×	×
	할머니	×	×	×	4	×	×

7 사적인 관계에 심리적 거리감, 친밀 정도에 따른 수평적 거리관계를 포함시킨다.

친족형	할아버지	x	x	x	x	x	1
	언니	x	x	1	1	x	2
	오빠	x	x	x	1	x	6
	누나	x	x	x	x	x	1
	형님	3	x	x	x	x	x
	형	x	x	x	x	x	2
	삼촌	x	x	x	x	x	1
	아가씨	x	x	3	x	x	x
친족 대용형	아주머니	2	1	2	x	x	x
	아저씨	2	3	2	x	x	x
	아줌마	x	x	x	2	x	x
	언니	x	x	4	x	1	x
	00언니	x	x	5	x	x	x
	형	x	x	x	x	x	1 ⁸
직함형	직함+님	4	x	2	x	2	x
	성+직함	1	x	x	x	1	x
	성+이름+직함	1	x	x	x	x	x
	성+이름+직함+님	x	x	x	x	2	x
이름형	성+이름+씨	x	x	x	x	3	x
	이름+씨	53	38	10	x	82	x
	이름	3	2	5	18	3	12
	이름+아/야	4	3	2	91	11	45
일반형	학생	1	x	x	x	x	x
	손님	1	1	1	x	2	x
	고객님	x	x	2	x	x	x
	선배(님)	1	1	x	x	1	x
	선생님	4	2	1	22	x	12
대명사형	여러분	6	3	1	12	3	3
감탄사형	여보	2	x	12	x	x	1
	여보세요	4	4	2	x	2	2
	애들아	x	x	x	1	x	1
처소형	저기요	1	x	x	x	x	x

8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대화문 예시:

제임스: 형, 노트북 찾았다면서요?

폴: 어제 찾았어.

친족형인지 친족 대용형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양상은 피해야 한다.

어린이 매개형	00엄마	x	x	3	x	x	x
------------	------	---	---	---	---	---	---

위의 <표 4>를 토대로 한국어 교재의 본문 대화문의 호칭어 제시 양상에 대해 사회언어학적인 관점으로 분석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표 3>의 사회언어학적 요인에 근거하여 교재별 호칭어 사용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참여자 요인

참여자 요인에는 대화 참여자의 나이, 성별, 계층, 가족 지위, 사회적 지위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사회언어학적 요소가 적용이 되었는지를 호칭어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친족형 호칭어

친족형 호칭어의 표현 형태가 가장 다양한 교재는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이다. 타 교재와 달리 참여자 요인의 하위 요소 중 나이와 성별 요소가 적용된 호칭어 형태가 많이 제시되었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 선택 사용되는 호칭어의 예로 ‘언니, 오빠, 누나, 형님, 형’이 있다. 구체적인 제시 양상은 다음과 같다.

사례 (1).

누나: 토마스, 난 배고파서 케이크를 먹을 거야? 너도 먹을래?
 토마스: 응, 나도 먹을래. 케이크가 어디에 있어?
 누나: 식탁 위에 있어. 어제 엄마가 만들었어.
 토마스: 누나, 주스도 있어?
 누나: 아니. 우유만 있어. 우유하고 같이 먹자. -생략-

자료: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2-1 6과.

『서울대 한국어』,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표준한국어』,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는 가족 지위에 따라 사용되는 호칭어의 형태가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아버지, 아빠, 어머니, 엄마, 할머니, 어머님, 어멈아 등’이다. 여기에서 『표준한국어』,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에는 ‘엄마, 아빠’의 형태 제시 빈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대화 참여자 중 부르는 사람의 나이가 적용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 두 교재는 대부분 초, 중, 고등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로 교수 대상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다.

사례 (2).

줄리앙: 아버지, 여기가 전에 말씀드렸던 청계천이에요. 아버지: 여기가 청계천이라고? 하도 많이 변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 줄리앙: 그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아버지: 예전에 여긴 자동차가 다니던 도로였어.	수잔: 어머님, 어젯밤에 아주 기분 나쁜 꿈을 꾸었어요. -생략- 수잔: 아, 그래요? 그런데 호랑이 꿈은 무슨 뜻이에요, 어머님? 시어머니: 또 무슨 꿈을 꾸었는데?
자료: 서울대 한국어 3B 14과.	자료: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4 7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와 『세종 한국어』의 본문 대화문에는 친족형 호칭어가 제시되지 않았다.

(2) 친족 대용형 호칭어

친족 대용형의 표현 형태는 주로 ‘아저씨’와 ‘아주머니’이다. 친족 대용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제시 양상을 교재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겠다.

사례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저씨’는 과일가게 주인, 택시 기사, 문구점 주인 등에 주로 사용되었고, ‘아주머니’는 야채 가게, 식당 주인 또는 종업원 등에 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친족 대용형의 표현 형태가 가장 다양한 교재는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이다. 해당 교재에서는 ‘언니, 00언니’의 형태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나이와 성별의 요소뿐만 아니라 상황 요인인 친소 관계가 적용되었음을 보여준다. 『표준한국어』에는 ‘아주머니’ 형태가 아닌 ‘아줌마⁹⁾’가 2회 제시되었다. 이는 고학년 초등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대화문으로 상대방보다

사례 (3).

<p>마리코: <u>아저씨</u>, 오렌지 얼마예요? 아저씨: 여섯 개에 오천 원이에요. 마리코: 사과는 얼마예요? 아저씨: 세 개에 이천 원이에요. 마리코: 뭐가 맛있어요? 아저씨: 모두 맛있어요. 마리코: 그럼 오렌지 여섯 개 주세요. 사과도 세 개 주세요. 아저씨: 네, 여기 있어요. 또 오세요.</p>	<p>지영: <u>아주머니</u>, 여기 순두부 둘 주세요. 아주머니: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생략- 지영: 순두부찌개가 어땠어요? 텡텡: 많이 매웠어요.</p>
<p>자료: 서울대 한국어 1A 6과.</p>	<p>자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1-2 17과.</p>

는 호칭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나이가 영향을 준 것이다.

(3) 직함형 호칭어

직함형 호칭어의 제시 빈도가 높은 것은 『서울대 한국어』와 『세종 한국어』이다. 교재의 구체적인 제시 양상은 다음과 같다.

사례 (4).

<p>부장님: <u>김 대리</u>, 회사 송년회 준비하느라고 고생했어요. 김민수: 아닙니다.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부장님: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직원들의 가족도 초대할 것이 아주 좋았어요.</p>	<p>부장: <u>김수진 씨</u>, 베트남 출장 준비는 잘돼 가고 있어요? 수진: 네, <u>부장님</u>. 현재 그쪽 업체 담당자와 일정 조정은 끝낸 상태입니다. 금요일 오전에 거기에 도착하면 바로 거래처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양쪽 담당자가 우선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부장님이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p>
<p>자료: 서울대 한국어 3B 13과.</p>	<p>자료: 세종 한국어8 9과.</p>

9 표준한국어 대화문 예시:

타이선: 아줌마, 이 과자 얼마예요?
 주인: 1000원이야.

위의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직함형 호칭어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사회적 지위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직함+님’ 형태의 사용 빈도가 비교적 높았다. 그리고 기타 교재에서는 직함형 호칭어의 제시가 부족한 실정이다. 모든 교재에 직함형 호칭어를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는 없으나 상하 수직 관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호칭어 유형이므로 대화문에서 어느 정도 다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관계지향적 대인관을 지니고 있는 한국인의 관습을 보여줄 수 있다.

(4) 이름형 호칭어

이름형 호칭어 중 제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이름+씨’ 형태이다. 이 표현 형태는 나이, 성별, 계층의 영향을 적게 받아 두루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의 제시 빈도가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름+씨’ 형태가 가장 많이 사용된 교재는 『서울대 한국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세종 한국어』이다. 그리고 ‘이름+아/야’의 형태가 가장 많이 제시된 교재는 『표준한국어』와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이다. 교수 대상자의 특성으로 보았을 때 이름형 호칭어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사회언어학적인 요소는 주로 나이이다.

(5) 일반형 호칭어

일반형 호칭어에서 제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선생님’이다. ‘선생님’은 『세종 한국어』를 제외한 모든 교재의 본문 대화문에 제시되었다. 일반형 중 ‘선생님’의 표현 형태를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쓰임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선생님’의 사전적 의미인 교사의 쓰임보다 기타 용법으로 더욱 많이 사용된다.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 그리고 호칭을 확정하지 못한 상대방을 부를 때에도 존경의 의미를 담아 ‘선생님’을 자주 사용한다. 이러한 용법은 학습자의 교육 자료 구축에 필요한 내용이다. 또한 ‘선배(님)’은 대학기관용 교재와 『세종 한국어』에 각 1회씩 제시되었는데 아래 예문을 통해 살펴보면 대화 참여자 모두 대학생임을 알 수 있다.

사례 (5).

<p>줄리앙: 동아리 선배를 소개해 주세요. 선배, 이 사람이 제가 말한 나오카 씨예요.</p> <p>나오카: 안녕하세요. 나오카라고 합니다.</p>	<p>미라: 선배님, 상담을 좀 하고 싶는데요. 시간이 되세요?</p> <p>수진: 그럼. 무슨 일인데?</p> <p>미라: 제 진로 때문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어 교육으로 대학원에 지원 했다가 떨어진 거 아시죠? 이번에 다시 모집하는데 합격할 자신이 없어서요.</p>
<p>자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3 8과.</p>	<p>자료: 세종 한국어8 1과.</p>

(6) 대명사형 호칭어

6종의 한국어 교재 본문 대화문의 대명사형 호칭어의 표현 형태는 모두 ‘여러분’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교재에서 ‘여러분’을 사용하는 참여자는 선생님이었다. 실제 교수 현장에서 ‘여러분’은 교수 언어로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다양한 상황이나 맥락을 설정하여 ‘여러분’이라는 대명사형 호칭어의 용법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습득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7) 감탄사형 호칭어

감탄사형 호칭어의 표현 형태는 주로 전화 통화할 때 사용하는 ‘여보세요’이다. ‘여보세요’는 참여자 요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이는 전화 통화에서 고정된 관용 표현으로 굳어졌다. 그리고 부부 사이를 나타내는 ‘여보’는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에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이는 학습자 특수성을 고려하였음을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감탄사형 호칭어는 참여자 요인의 영향을 적게 받는 유형이다.

(8) 처소형 호칭어

처소형 호칭어는 『서울대 한국어』교재의 대화문에서만 ‘저기요¹⁰⁾’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었다. 나은미(2019: 661)에서 조사한 결과, 학교 안에서 낯선 사람을

부를 때 90% 이상의 사람들이 ‘저기요’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실제 생활에서 낯선 사람, 식당에서 주문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요, 저기요’를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5종의 한국어 교재 대화문에는 이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를 반영하였으면 하는 바이다.

(9) 어린이 매개형 호칭어

어린이 매개형 호칭어는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¹¹에서만 확인되었다. 이는 결혼이민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매개형은 결혼 이민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아이 친구의 엄마들을 부를 때 자주 사용하는 호칭어 표현이다. 이는 관계를 맺는 데에 필요한 내용으로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수 자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아빠, 엄마’라는 아기말이 아닌 ‘어머니, 아버지’의 형태를 더 자주 사용한다. 아기말 매개형은 부부 간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 매개형은 참여자 요인보다 상황 요인의 영향을 더 받는 호칭어이다. 왜냐하면 나이, 계층, 사회적 지위에 상관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친소 관계에 따라 관계가 가까워질 경우 친족 대응형 또는 이름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10 서울대 한국어 대화문 예시:

켈리: 저기요, 한옥마을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아저씨: 저도 여기가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생략-

켈리: 실례지만 한옥마을에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아주머니: 4번 출구로 나가면 돼요.
 켈리: 4번 출구에서 한참 가야 돼요?
 아주머니: 아니요, 가까워요. 쪽 가다가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면 한옥마을이 나와요.
 켈리: 감사합니다.

11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대화문 예시:

수잔: 현우 **엄마**, 큰일 났어요. 방금 우리 은수가 뜨거운 물에 다리를 데었는데 어떡하죠?
 현우 **엄마**: 진수 **엄마**, 당황하지 말고 제 말 잘 들으세요. 우선 은수를 데리고 욕실로 가서 찬 물에 담그게 하세요.

2) 상황 요인

상황 요인에는 대화 참여자의 관계와 사용 환경을 포함시켰다. 이와 같은 사회언어학적 요소가 적용이 되었는지를 호칭어 유형별로 살펴볼 것이다.

(1) 친족형 호칭어

친족형 호칭어는 주로 사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가족 관계는 혈연 관계로 공적인 관계가 아니다. 사용 환경도 대부분 가정이거나 사적인 장소이다. 그러나 상황 요인의 적용을 받으면서 참여자 요인 중 가족 지위 또는 나이 등 요소의 영향을 받아 호칭어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같은 ‘어머니’ 유형의 호칭어이나 부르는 사람, 듣는 사람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이러한 상황은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례 (6).

시어머니: <u>어멈아</u> , 포 좀 가져와라. 호영: 네? <u>어머님</u> , 포가 뭐예요? -생략-	가: <u>어머니</u> , 이 사람이 어머니 드리려고 샀대요. 나: 어멈아, 고맙구나.
자료: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4 2과.	자료: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5 4과.

가족 관계를 보여주는 친족형 호칭어의 제시 양상을 살펴보면 『서울대 한국어』,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표준한국어』,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모두 대화문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와 『세종 한국어』에서는 제시가 부족하다. 한국인의 가족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형태를 선정하여 대화문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친족 대용형 호칭어

친족 대용형의 표현 형태는 주로 ‘아저씨’와 ‘아주머니’이다. 친족 대용형이 사용된 상황이나 장소는 주로 과일가게, 식당, 택시, 문구점 등이다. 그리고 대부분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교재 대화문의 예문은 앞의 참여자 요인에서 이미 제

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식당에서 ‘아주머니’보다는 ‘이모’를 더 자주 사용한다. ‘이모’가 상대방과의 거리를 더 좁혀줘 친밀감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저씨’를 교수할 때 과일가게, 문구점, 택시를 타는 상황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소방관 아저씨, 경찰 아저씨’라는 표현도 ‘+α’의 형태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3) 직함형 호칭어

직함형 호칭어의 제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서울대 한국어』와 『세종 한국어』이다. 직함형 호칭어는 대부분 공적인 관계이며, 사용 환경은 직장이거나 공식적인 장소이다. 교재의 구체적인 제시 양상은 다음과 같다.

사례 (7).

<p>부장님: <u>김 대리</u>, 회사 송년회 준비하는라고 고생했어요.</p> <p>김민수: 아닙니다.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p> <p>부장님: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직원들의 가족도 초대할 것 이 아주 좋았어요.</p>	<p>부장: <u>김수진 씨</u>, 베트남 출장 준비는 잘돼 가고 있어요?</p> <p>수진: 네, <u>부장님</u>. 현재 그쪽 업체 담당자와 일정 조정은 끝낸 상태입니다. 금요일 오전에 거기에 도착하면 바로 거래처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양 쪽 담당자가 우선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u>부장님</u>이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p>
<p>자료: 서울대 한국어 3B 13과.</p>	<p>자료: 세종 한국어89과.</p>

직장 문화에서 직함형 호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많은 오해를 사게 되어 직장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 한국어 교재의 대화문에서는 직함형 호칭어의 제시가 부족하다.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여 직함형 호칭어의 용법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위의 세종 한국어의 용례와 같이 하나의 대화문에 다양한 유형의 호칭어를 결합시키는 방법도 한국어 호칭어 교수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이름형 호칭어

이름형 호칭어 중 제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이름+씨’ 형태이다. 『서울대 한

국어¹²],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¹³』, 『세종 한국어¹⁴』에서 ‘이름+씨’ 호칭어의 제시 빈도는 각각 53회, 38회, 82회이다. ‘이름+씨’ 형태는 공식, 사적인 관계에 모두 사용 가능하다. 모든 상황에 두루 사용될 수 있는 표현 형태로 사람들이 쉽게 배우고, 잘못 사용하여 오해를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관계가 가까워짐에 따라 ‘이름’, ‘이름+아/야’형으로 바뀌기도 하고 나이나 성별 요소가 작용하여 친족 대응형 ‘언니, 오빠, 형 등’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5) 일반형 호칭어

일반형 호칭어의 표현 형태가 비교적 다양한 교재는 『서울대 한국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이다. 주로 ‘손님, 선배(남), 선생님’이다. ‘손님’은 4종의 교재에 모두 제시되었다¹⁵.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듯

12 서울대 한국어 대화문 예시: 정우: 켈리 씨, 한국 생활이 어때요?

켈리: 한국어 공부는 재미있지만 주말에는 조금 심심해요.

정우: 그래요? 그럼 주말에 같이 자전거 탈까요?

켈리: 좋아요. 어디에서 탈까요?

정우: 한강에서 타요.

켈리: 네. 그런데 한강에 어떻게 가요?

정우: 가까워요. 걸어서 가요.

13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대화문 예시:

호영: 에릭 씨, 지난 주에 이사 잘 했어요?

에릭: 네, 친구들이 도와줘 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호영: 저도 도와주고 싶었는데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미안해요.

14 세종 한국어 대화문 예시:

투이: 민수 씨, 제 친구 아피아 씨예요. 인사하세요.

민수: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아피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민수: 아피아 씨는 학생이예요?

아피아: 아니요, 저는 학생이 아니예요, 요리사예요. 민수 씨는 회사에 다니세요?

민수: 네, 저는 회사에 다니요.

15 서울대 한국어 예시:

점원: 손님, 어떤 옷을 찾으세요?

유진: 코트 좀 보려고 왔어요.

점원: 이건 어떠세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예요.

유진: 네, 한번 입어 볼게요. --서울대 한국어

이 ‘손님’은 쇼핑, 미용실, 박물관 등 다양한 상황이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공손성이 더 함축된 한자어 표현 ‘고객님’도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일반형 중 ‘선생님’은 대부분 교사의 쓰임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선생님’의 사전적 의미인 교사의 쓰임 외에 ‘의사 선생님’, 그리고 호칭을 확정하지 못한 상대방을 부를 때에도 존경의 의미를 담아 ‘선생님’을 자주 사용한다. 이러한 사회언어학적 변이에 대해 수용하고 한국어 교수 자료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상황이나 맥락을 설정하여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이러한 변이를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6) 대명사형 호칭어

6종의 한국어 교재 본문 대화문의 대명사형 호칭어의 표현 형태는 모두 ‘여러분’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교재에서 ‘여러분’은 다수의 대상들을 부르는 상황에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각주에 제시한 바와 같이 다양한 텍스트¹⁶에 사용되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예시:

팅팅: 세실 씨, 어떤 색이 저한테 잘 어울려요?
 세실: 하얀색도 예쁘데 빨간색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생략-

팅팅: 그래요? 그러면 빨간색 M사이즈 1장 주세요.
 직원: 죄송합니다, 손님. M사이즈는 지금 다 팔리고 없어요.
 팅팅: 그러면 빨간색 말고 하얀색 주세요.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예시:

미용사: 손님, 어떻게 해 드릴까요?
 수잔: 머리를 조금 자르고 파마를 하고 싶은데요.

세종 한국어 예시:

안내원: 손님, 입장 시간이 지나서 오늘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내일 다시 와 주세요.
 유키: 아, 그래요? 그럼 내일은 몇 시부터 관람할 수 있어요?
 안내원: 9시부터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안내 책자를 하나 드릴까요?
 유키: 네, 감사합니다. 일본어로 된 거 있어요?
 안내원: 여기 있습니다. 일본어 안내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유키: 네, 저, 그런데 근처에 지금 관람할 수 있는 다른 곳은 없을까요? 혹시 다른 박물관은 몇 시에 문을 닫는지 아세요?
 안내원: 그럼 차 박물관에 가 보세요. 그곳은 늦게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16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예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더운 날 시원한 콩국수 ... 우리 주부님들, 보통 도깨비방망이라고

도 하고 공손성이 비교적 높은 호칭어 표현 형태이다. 또한 앞에 ‘승객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등’과 같이 대상을 특정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표준한국어』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관계만 보여주었다.

(7) 감탄사형 호칭어

감탄사형 호칭어의 표현 형태는 주로 전화 통화할 때 사용하는 ‘여보세요’이다. ‘여보세요’는 참여자 요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이는 전화 통화에서 고정된 관용 표현으로 굳어졌다. 그리고 부부 사이를 나타내는 ‘여보’는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에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이는 학습자 특수성을 고려하였음을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감탄사형 호칭어는 참여자 요인의 영향보다는 상황 요인의 영향을 더 받는다.

(8) 처소형 호칭어

처소형 호칭어는 『서울대 한국어』 교재의 대화문에서만 ‘저기요’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처소형 호칭어는 실제생활에서 낯선 사람을 부를 때, 주의를 끌 때, 식당에서 주문을 할 때 등 많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즉 친소 관계의 영향을 받으며,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교재의 대화문에서는 이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다. 이에 대한 예시는 앞에서 제시한 바 있어 다시 밝히지 않을 것이다.

(9) 어린이 매개형 호칭어

어린이 매개형 호칭어는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¹⁷⁾에서만 확인되었

하시지요? ... 뭐든지 넣고 같이 주시면 ‘뚝딱’하고 만드실 수 있습니다.

주부라면 누구나 하나쯤 갖고 싶어 하는 우리 전자랜드 미서!

서울대 한국어 예시:

사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한글날 기념 글짓기 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의 한국 생활’이었습니다. 수상자는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 에 대해 쓴 응웬 히엔 씨입니다. 히엔 씨, 축하합니다. 수 상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 이는 결혼이민자라는 학습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매개 형은 결혼이민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아이 친구의 엄마들을 부를 때 자주 사용하는 호칭어 표현이다. 아이들을 매개로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친한 사이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 매개형은 특수한 형태로 모든 한국어 교재에 제시할 필요는 없다. 결혼이민자와 같이 특수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에서 선택적으로 제시하여 교수하면 좋을 것이다.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6종의 한국어 교재의 본문 대화문의 호칭어에 대해 사회언어학적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 교재의 대화문에 제시할 호칭어의 선정과 대화문의 내용 구성에 사회언어학적 요인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선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선행 연구에 대한 고찰과 분석을 통해 사회언어학적 요인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분석 대상 교재를 선정하고 대화문에 제시된 호칭어를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 요인과 상황 요인을 대분류로 하고 세부적인 하위 요소들을 호칭어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결과, 각 교재들의 대화문에 제시된 호칭어의 표현 형태의 다양성과 제시 빈도가 비교적 낮았다. 그리고 상황 요인의 하위 요소인 사용 환경과 맥락, 관계 등이 적용된 호칭어의 제시가 부족하였다. 또한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몇 가지 호칭어 유형은 대화문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처소형 '여기요, 저기요', 기본적인 친족형(현대 사회의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호칭어), 사용 빈도가 높은 직함형(예: 직함+님) 등이다. 다음으로 호칭어 유형별 표현 형태의 다양한 쓰임도 대화문에 추가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선생님'의 다양한 쓰임, '아저씨'의 다양한 용법 등이다. 이를 추가하면 자연스럽게 대화문에 사회언어학적인 요인이 적용된다.

본 연구는 교재의 본문 대화문이라는 텍스트에 한정되었다는 제한성이 있다.

17 참여자 요인을 설명할 때 제시하였으므로 예시는 따로 밝히지 않았음.

그러나 본 연구가 사회언어학적인 요인을 적용한 한국어 교재 대화문 내용 구성에 참고적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기타 텍스트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의 분석은 추후 과제로 남긴다.

교신: 김홍매(연변대학교 박사후 연구원)(khm0425@ybu.edu.cn)

Correspondence: Hhong Mei Jin(Postdoctoral Fellow, Yanbian University)(khm0425@ybu.edu.cn)

2021.10.22 접수, 2021.10.31 심사, 2021.11.16 게재확정

참고문헌

- 강영, 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호칭어 교육, *비교한국학*, 14(2), 31-58.
- 강소산·전은주, 2013, 한국어 교육에서 호칭어, 지칭어 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 *새국어교육*, 95, 363-389.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2015,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1-1~6-2.
- 국립국어원, 2010-2012,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6, 한글파크, 하우.
- 국립국어원, 2019, 세종 한국어 1~8.
- 국립국어원, 2020, 표준한국어(초, 중, 고등학생을 위한), 하우, 다락원.
- 김미경 외, 2019, 대학생 간 호칭어 사용 양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 2000년대 이후 학번을 대상으로, *반교어문연구*, 52, 119-166.
- 김혜진 외, 2015,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친족 호칭어의 사용 양상: 한국어 호칭어 교육 내용 구안을 위한 교육 자료, *언어와 문화*, 11(3), 117-146.
- 김홍매, 2019, 사회문화적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언어문화 교육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나은미, 2019, 호칭어 사용의 갈등 양상과 적절한 호칭어 사용을 위한 제언, *민족문화연구*, 83, 645-668.
- 박갑수, 1989, 國語 呼稱의 實狀과 對策, *국어생활*, 19, 10-32.
- 박상천, 2004, 한국어 호칭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순, 1995, 상대높임법의 사회언어학, *어문논집*, 34, 549-570.
- 박은하, 2013, 호칭어 '선생님'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대학에서의 표준형과 변이형 사용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59, 1-24.
- 박정운, 1997, 한국어 호칭체계, *사회언어학*, 5(2), 507-527.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13, 서울대 한국어 1A~2B, 문진미디어.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15, 서울대 한국어 3A~6B, 투판즈.
- 왕한석 외, 2005, 한국 사회와 호칭어, 역락.
- 유경옥·강미영, 2017,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호칭어 교육 연구, 언어학연구, 45, 375-397.
- 유럽평의회, 2018,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
- 유원호·채서영, 2011, 타이틀과 호칭어로 쓰이는 직업명: 일곱 개 언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언어와 언어학, 50, 147-170.
- 이선화, 2002, 공공 상황에서의 한국어 호칭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만, 2003, 존대어법 비교 연구: 한국어와 성경언어, 진리와 학문의 세계, 8(1), 75-98.
- 이정복, 2011, 트위터 누리꾼들의 호칭어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어문학, 114, 143-174.
- 이정복, 2012, 한국어 경어법의 기능과 사용 원리, 소통.
- 제효봉, 2010, 한국어 호칭어 교육 방안 연구: 듣기 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25, 271-310.
- 조태린, 2020, 대학교수 간 호칭어 사용 변이에 대한 질적 연구: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의 양적 접근을 넘어서, 한글, 81(1), 115-147.
- 최경희, 2011,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호칭어 교육 연구: 사회 호칭어를 중심으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8(2), 225-252.
- 최규일, 1986, 한국어의 친족호칭 어휘 연구(1), 국어교육, 55, 51-85.
- 최석재, 2007, 호칭어의 사용 조건과 대우 등분 연구, 인문언어, 9, 307-336.
-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201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1-1~6, 하우.
- 한현희, 2016, 러시아어와 한국어 호칭어의 사회언어학적 비교 연구, 노어노문학, 28(2), 103-139.
- 황보나영, 1993, 현대국어 호칭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서울지역 대학생 사회의 용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Балакай, А. Г., 2002, Русский речевой этикет и принципы его лексик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писания. Новокузнецк.
- Brown, R. and Gilman, A., 1960, The Pronouns of Power and Solidarity. In Thomas A. Sebeok(ed). Style in Language. Cambridge, MA: The MIT Press.

An Analysis of Address Forms Usage in Korean Textbooks From a Sociolinguistic Perspective

-Focusing on dialogues in the main text-

Hong Mei Jin* · Guang Zhu Ji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ctual use of address forms in dialogues of the main text, which is a crucial teaching material in Korean textbooks, from a sociolinguistic perspectiv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ociolinguistic factors were not adequately applied to the actual use of address forms in the main dialogue overall. Second, it turned out that chapters that explicitly stated specific address forms as key learning points did not include those address forms. The address forms designated as the teaching goal of the chapter should be included in the dialogue text of that chapter to some extent. Third, the difference between the education settings of address forms as a second language and as a foreign language and the specificity of textbooks with specific purposes were not prominent. Fourth, the way some address forms were presented was not consistent.

Keywords Korean Textbooks, Address Forms, Sociolinguistics, Dialogues

* First-Author/Corresponding Author, YanBian University, Postdoctoral Fellow, khm0425@ybu.edu.cn

** Co-Author, YanBian University, Professor, yuyansuo@ybu.edu.cn